

空間의 개념과 九宮의 공간모델화에 대한 연구

김용찬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the Concept of Space and Modeled Space of the Jiu-Gong

Yong Chan Kim, Jung Soo Kang*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All creatures are living in the space and time. As the space and time are prior to experience, they are preconditions for an incident to happen and preconditions for each other to coexist as well. Therefore, time can be recognized through the change of space and the space can be understood by the passage of time. In western philosophy, the space was understood as an object, place, interval, mind and etc. In oriental philosophy, even though one space is just a part of bigger space, the space may represent the universal space, and the various spaces are no more than a space. The space itself doesn't have any color, form, beginning and end, or liu-he(六合). However, it is the biggest concept that we can find everywhe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space, we need to find our position by expressing subjective positions like above and below, left and right, before and after, and objective positions like high and low, east and west, south and north. In oriental philosophy, the sun is the standard point in finding position; its front side is south, the backside is north, the left side is east, the right side is west, the upper side is south and the lower side north. Based on the finding position which is stated above and by taking each characteristics of he-luo-xi-wen(河洛義文) and interrelations among them, the space can be modeled. Followings are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 Tian doesn't fill in west and north. Di doesn't fill in east and south. Tian-dao(天道) turns to left, and Di-dao(地道) turns to right. There is no direct way to get to Dui-chong-fang(對衝方) without passing by Zhong-gong(中宮). The solid figure of eighty-one Bian-ju(變局) and sixty-four Gua-tu(卦圖).

Key words : he-luo-xi-wen(河洛義文), space, concept of space, modeled space

서 론

모든 만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한다. 『老子』에서는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陰負而包陽 沖氣以爲和¹⁾”라 하였고, 『天符經』에서는 “天一一 地一二 人一三²⁾”라 하여,天和地가 생긴 이후에 사람이 생하여 天地의 가운데에서 沖氣로 和를 이루고 살아간다고 하였다. 『醫學入門·原道統說』³⁾에서는 “陽의 輕淸한 것이 올라가 天이 되고, 陰의 重濁한 것이 내려가 地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 내용들은 시간과 공간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시간의 순서는 天·地·人의 순서로 생하고, 공간적으로는 天地間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의 人은 만물과 같은 뜻의 人이다. 또한 칸트는 “시간과 공간은 경험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능하게 해

주며 경험 이전에 이미 있어야 하는 조건이며 직관형식이다.”라고 하였고, “時·空間은 경험 이전적인 것으로 직접적으로 時間間을 경험하거나, 空間만을 경험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⁴⁾” 하여 時·空間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이들이 相互存在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하였다. 서양과학에서는 이를 차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時·空間을 空間 3차원과 時間 1차원으로 구성되는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다⁵⁾ 하였고, 동양철학에서는 時·空間이 결합된 河圖·洛書·伏羲八卦·文王八卦⁶⁾을 이용하여 時·空間의 變化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黃帝內經』, 『傷寒論』의 많은 의서에서 時·空間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時·空間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광역시 용문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omdkjs@dju.ac.kr Tel : 042-483-1724

· 접수: 2002/06/24 · 수정: 2002/08/20 · 채택: 2002/09/17

1) 王弼 / 임채우 옮김, 왕필의 노자, 서울, 예문서원, 2000, p. 171.
 2) 최동환, 한역, 서울, 하남출판사, 1999, p. 182.
 3) 李樾, 醫學入門, 서울, 대성문화사, 1994, p. 194.
 4)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1997, pp. 32-33.
 5) 스티븐 호킹 / 玄正暎 譯, 시간의 역사, 서울, 삼성출판사, 1994, p. 5
 6) 이하 河·洛·義·文이라 한다.

동·서양의 무수한 학자들이 관념적으로 혹은 실험적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여 왔다. 과거의 신화적인 개념으로부터 현재의 첨단과학에 이르기까지 시·공간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그 동안 시간성 위주의 연구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으나, 空間性 위주의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저자는 공간의 개념과 그 공간을 나타내는 定位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河·洛·羲·文·九宮을 공간(육합)에 접목시키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공간의 개념 - 空間에 대한 철학적 인식

1) 서양철학에서의 인식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고대로 철학자와 과학자들의 의문점이었다. 서양 철학에서는 공간을 사물, 장소, 간격, 마음 등으로 파악하였다.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는 신의 피조물인 유한세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실재에는 마음과 사물이 있다 하였다. 마음의 본질은 사고인 것에 반해, 사물의 본질은 연장이다. 연장이란 확장 뜻으로 어떤 대상의 속성은 그 대상이 필연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확장 있는 곳에 반드시 사물이 있다 하였고, 사물과 확장은 동일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물과 공간은 같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무엇인가가 항상 존재해야 하는 實空間이고 비어 있는 虛空間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마음과 사물을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물이 마음에 작용하는 것도, 마음이 사물에 작용하는 것도 부정했다. 공간이 물체와 같은 것이 아니고, 물체로부터 구별되는 무엇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물체가 존재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공간은 장소라고 파악하였다. 물체는 당연히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간은 장소라는 생각이다. 위의 두가지를 결합하면 공간은 물체가 존재하는 장소이고, 그 안에 물체를 넣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체를 제거한 나머지의 곳이라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공간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있는 간격(사이)이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었다. 두개의 사물이 동시에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서 둘은 다른 위치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양자는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 된다. 간격을 가진 두개의 사물 사이에는 기준을 정함에 따라 上下·左右·內外·表裏·縱橫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은 라이프니츠의 견해로 그는 이러한 간격이 질서라고 생각하여 공간과 간격과 질서를 같은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공간은 실재하는 것이라기 보다 관계의 총체로 보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칸트는 라이프니츠의 물체와 물체, 물체와 공간, 공간과 공간의 상대적 관계성보다 진일보하여 공간은 마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은 마음이라고 하였다. 공간이 정보화되어 환경이 성립되기 때문에 어떤 생물이 같은 공간일지라도 어떻

게 받아들이는가에 의해 환경이 결정되어 간다고 하였다.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세계상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인데,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다르면 당연히 세계상도 다르다. 여기서 절대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여겨지는 시·공간도 실은 필연적으로 인간의 知와 상대적이고, 또 인간의 인식 기능인 마음에 철저히 의존하는 것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관념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¹⁰⁾. 이를 확장하여 생각해보면 각 개인의 주관에 따라 그 공간은 달라진다 할 수 있다. 이로서 칸트는 외재적인 시·공간을 인간의 내부로 끌어들이었다¹¹⁾.

2) 동양철학에서의 인식

「法性攝」에서는 “一中一切多中一 一即一切多即一 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이라 하였다. 이는 “하나 가운데 일체요, 많은 가운데 하나며, 하나가 곧 일체요, 많은 것이 곧 하나이다.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포함되고 모든 티끌 속에도 또한 그러하다¹²⁾”라는 뜻으로 하나의 공간은 더 큰 공간의 한 구성 공간이지만, 그 하나의 공간은 전체의 공간을 대표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공간도 하나의 공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티끌 하나에도 전체의 공간을 머금고 있고, 모든 티끌 또한 그렇다 하여, 서양과학의 프랙탈 이론¹³⁾과 유사한 세계관을 보여준다. 「한단고기」의 「三一神誥」에서는 虛空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帝曰 爾五加衆 蒼蒼非天 玄玄非天 天无形質 无端倪 无上下 四方虛虛空空 无不在 无不容”라 하여 이는 “제 가로대 너희들 오가의 무리들아. 파이란 것이 하늘이 아니며 까야만 것이라고 하늘인 것은 아니다. 하늘은 얼굴(形)과 바탕(質)이 없으며 첫끝과 맞닿도 없으며, 위 아래와 사방도 없고 같은 황하며 속은 텅 하여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며, 싸지 않은 것이 없나니라¹⁴⁾”라는 뜻으로 어떤 色도 없고 形質도 없고, 始終도 없으며, 六습도 없지만 없는 곳이 없는 가장 큰 개념이라 하였다.

동양에서는 이러한 공간의 구조상을 河·洛·羲·文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였다. 각각의 圖書에는 上下·左右·前後·表裏·東西·南北의 방향성을 주어 실제로 응용하여 사용하였다.

2. 공간의 定位

우리들의 생활 행동에 있어서 필요한 공간정보는 공간질서를 통하여 인식하는데,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물과 사물과의, 또는 자기와 사물과의 위치관계에 있다. 이 관계에 의하여, 우리들은 자기의 공간적 위치를 인식하고, 행동을 위하여 자신의 방향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정위¹⁵⁾라고 한다. 정위를 위한 공간질서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上·下, 左·右, 前·後, 間 등이 있고, 이들의 관계의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方位(東·西·南·北)가 있다¹⁶⁾. 동양학에서는 이런 공간질서를 六습

7) 나가노 하지무 / 催在錫 譯, 공간과 인간, 서울, 국제, 1999, pp. 34-3
8) 나가노 하지무 / 催在錫 譯, 공간과 인간, 서울, 국제, 1999, p. 39.
9) 나가노 하지무 / 催在錫 譯, 공간과 인간, 서울, 국제, 1999, pp. 44-4

10) 나가노 하지무 / 催在錫 譯, 공간과 인간, 서울, 국제, 1999, pp. 49-5
11)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1997, p. 33.
12) 지안, 법성개강설, 부산, 동남기획, 1999, pp. 27-32.
13) 김용운, 카오스와 불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1, pp. 79-83.
14) 프랙탈, fractal. 자기닮음으로 일부는 전체를 반영하고 전체는 일부에 모두 담겨 있다는 이론이다.
15) 임승국, 한단고기, 서울, 정신세계사, 1992, pp. 237-238.
16) 定位, orientation. 보통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있는가라고 하는 확인
16) 나가노 하지무 / 최재석 譯, 공간과 인간, 서울, 국제, 1999, pp. 89-9

이라 표현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정의하려면 난해한 점이 많다. 이들이 상대적인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념적이거나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고, 인간에 있어서는 자연이 기준점으로 성립된다.

1) 주관적 定位와 객관적 定位의 관계

上·下, 左·右, 前·後는 나를 기준으로한 주관적인 정위표현으로, 이보다 객관적인 정위표현은 高·低·東·西·南·北이 있다.

칸트는 “우주, 지역에 대한 우리의 판단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들에 대해 갖는 개념들에 종속되더라도 그것들은 인체의 양측면에 관계하여 결정된다 … 내가 방위점들의 질서를 아무리 잘 알더라도, 나는 이 질서가 어느 쪽으로 진행되는지 아는 한에 있어서만 그 질서에 따라서 지역들을 결정할 수 있다”¹⁷⁾라고 하여 主觀的 定位와 客觀的 定位를 모두 알아야만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 주체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에 따라 대응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체가 南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左가 東, 右가 西, 後가 北이 되지만, 180° 회전을 하게 되면 前이 北, 後가 南, 左가 西, 右가 東이 되므로 모두 바뀌게 된다. 만일 누운 자세를 취하게 된다면 이는 더 복잡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체의 방향을 위해서는 주관적 정위표현과 객관적 정위 표현을 모두 명백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를 설명함에 있어 上·下, 左·右, 前·後는 사람이 직립하여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1) 上下·高低

上·下는 위와 아래라는 뜻으로 高·低와 분별해야 한다. 上·下는 정량화되지 않은 정성적(質的)인 공간질서임에 반하여 高·低는 정량화되어 있다¹⁸⁾. 쉽게 말하자면 上·下는 어떤 기준점보다 高의 상태에 있으면 上이라 하고, 低의 상태에 있는 것을 下라고 한다. 高·低는 1차적인 뜻이 높이를 나타내는 수치로 나타내지고, 그것에 근거를 두고 판단되는 것에 반하여 上·下는 위치의 관계가 1차적인 뜻이다. 예를 들어 내가 直立해 있는 경우 머리는 高하고 발은 低하다. 그렇기 때문에 황격막을 중심으로 머리쪽은 上이고 다리쪽은 下이다. 나의 위치에서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 하늘은 나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高하고 上에 있고, 땅은 나의 발아래 있기 때문에 低하고 下에 있다. 여기서 내가 불구나무를 서게 되면 땅은 나의 上에 있고 하늘은 나의 下에 있지만 여전히 하늘은 나보다 高하고, 땅은 나보다 低하다.

(2) 前後左右·東西南北

左·右와 前·後라는 것은 上·下의 개념보다 더욱 주관적인 개념으로 이는 東西南北의 방위개념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前이라는 것은 내가 直立하여 똑바로 보이는 방향이고, 後라는 것은 그 반대방향으로 정의한다. 左·右라는 것은 나의 왼쪽을 左라고 하고, 나의 오른쪽을 右라고 정의하지만 左右는 완전히 관습적인 정의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힘들다. 이런 前後左右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前·後, 左·右의 개념은 내가 180° 회전함에 따라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前·後, 左·右의 개념은 東·西·南·北과 같이

생각해야 한다. 東西南北은 人間이 自然을 보고 정해 놓은 지구 상에서의 방위이다. 해뜨는 쪽을 東, 해가 지는 쪽을 西로 하고, 태양이 정오에 있는 방향을 南, 반대방향을 北쪽으로 설정하였다.

2) 동양학에서의 定位

定位라는 뜻의 orientation의 어원이 동쪽을 나타내는 orient라는 점에서 항상 한 방향에서 나타나는 日出을 東으로 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東洋學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 天地의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上·下, 前·後, 左·右의 개념과 高·低, 東·西·南·北의 개념이 복합적으로 한번에 표현되었다. 東에서 떠오른 태양은 正午에 南으로 가서 나보다 高하여 上에 있게 되고, 저녁에는 西로 내려가 子正에는 북쪽으로 가서 나보다 低하여 下에 있게 된다고 인식했다. 여기에 성인은 북두의 위치에서 南面하셨다 하여 前面이 南, 後面이 北, 左가 東, 右가 西가 되고, 남쪽에 太陽이 高하기 때문에 上이 되고, 北이 下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河·洛·羲·文의 東西南北과 上下左右의 배치가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四方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고, 六合으로 봤을 때는 東洋學에서는 高는 天이라 하였고 低는 地라 하였다.

3. 河·洛·羲·文을 통한 九宮의 입체화

1) 空間化

(1) 九宮의 입체모델

① 『類經圖翼』의 太虛圖¹⁹⁾는 圓圖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太極體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圓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空間이라 하면 작게 보면 작은 먼지로 부터 가깝게는 人體, 크게는 天體가 개별적인 空間이 됨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圓의 입체상인 구를 태극체로 하여 공간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크게 보면 一氣의 聚散일 뿐이므로 九宮으로 나누더라도 각 宮은 기운의 움직임 중에 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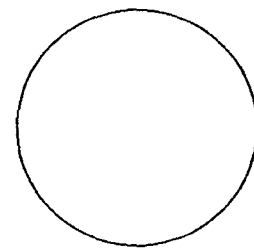


그림 1. 太虛圖

② 위와 같은 구의 공간에서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방향을 설정하였다. 방향은 客觀的 定位인 高低, 東·西·南·北의 六合으로 표시했다. 高低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天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설명은 태극체인 구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겠지만 매번 기준선을 표시하는 불편함을 덜고자 六合의 도형인 정육면체를 이용하였다.

17) Yi-Fu Tuan / 鄭英苗 譯, 공간과 장소, 서울, 泰林文化社, 1995, p. 47
18) 나가노 하지무 / 최재석 譯, 공간과 인간, 서울, 국제, 1999, p. 91.

19)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92, p. 11.

③ 九宮과 八卦의 차이는 洛書와 文王八卦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中宮의 有無이다. 이를 도형화하면 정육면체를 8등분 하여 작은 정육면체가 8개 모여있는 모양이 팔괘의 구조이고, 그 8개의 정육면체가 만나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8개의 정육면체의 일부분들을 모은 것을 中宮으로 하여 9개의 공간으로 나타낸 것이 九宮의 구조이다. 이를 도형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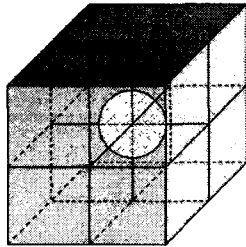


그림 2. 六舍의 九宮構造

奇門에서 中宮이 皇極이 되어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이렇듯 八方의 氣運이 모여서 구성되기 때문이다.

(2) 伏羲八卦의 입체모델

伏羲八卦는 先天八卦라고도 하여 우주생성원리를 담고 있는 卦이다. 卦의 生成順序는 下爻부터 上爻의 순서로 만들어져서 下爻를 天爻, 中爻를 地爻, 上爻를 人爻라 하지만, 좌표로써 작용할 때는 天人地 定位를 따라 上爻부터 下爻의 순서로 上爻를 天爻, 中爻를 人爻, 下爻를 地爻라고 한다. 卦는 陰陽을 나타낸 것으로 爻는 陰爻와 陽爻로 구성되어 宇宙의 森羅萬象을 표현하고 千變萬化하는 變化를 표시한다.

이를 사용상의 편의에 따라 數로 표현하면 아직 未動하여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에는 장래에 動할 뜻을 내포하고 있는 가능성을 陰이라 하여 陰數로, 動하여 겉에 드러난 것을 陽이라 하여 陽數로 보며, 그 陰陽의 가운데에 있어 어느 쪽으로도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太極을 0으로 표현한다. 사용함에 있어서는 陰數의 대표를 -1로 하고 陽數의 대표는 1로 한다. 伏羲八卦를 이용한 空間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中宮이 중점을 (0, 0, 0)으로 설정하여 수직선을 그린다.

② 이를 上下축인 y축을 上爻의 天축으로, 左右축인 x축을 人축으로, 前後축인 z축을 地축으로 하고, 天·人·地가 섞여진 곳을 陽의 방향, 각각의 반대 방향을 陰의 방향으로 설정한다.

③ 先天八卦의 八卦의 爻를 (天, 人, 地)의 순서로 숫자의 좌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乾 (1, 1, 1) 兌 (-1, 1, 1)
- 離 (1,-1, 1) 震 (-1,-1, 1)
- 巽 (1, 1,-1) 坎 (-1, 1,-1)
- 艮 (1,-1,-1) 坤 (-1,-1,-1)

④ 각 卦의 좌표를 天·人·地의 축에 표시한 후, 숫자의 좌표를 해당 卦名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이것이 先天八卦의 공간 구조이다²⁰⁾(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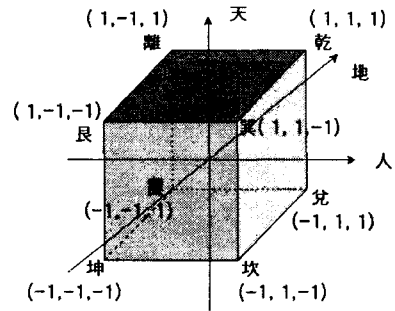


그림 3. 伏羲八卦의 입체모델

(3) 文王八卦의 입체모델

伏羲八卦는 우주의 生成 모습이고 文王八卦는 우주의 變化하는 모습이므로 변화상인 九宮을 나타내기 위하여 先天八卦를 後天八卦로 변화시킨다. 『周易·乾卦九五』에 보면 “同聲相應, 同氣相求,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 本乎天者親上, 本乎地者親下, 即各從其類也²¹⁾”라 하였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 참조).

- 同聲相應 : 先天 離에 後天 震이 온다.
- 同氣相求 : 先天 坎에 後天 兌이 온다.
- 水流濕 : 先天 坤에 後天 坎이 온다.
- 火就燥 : 先天 乾에 後天 離이 온다.
- 雲從龍 : 先天 震에 後天 艮이 온다.
- 風從虎 : 先天 兌에 後天 巽이 온다.
- 本乎天者 親上 : 先天 艮에 後天 乾이 온다.
- 本乎地者 親下 : 先天 巽에 後天 坤이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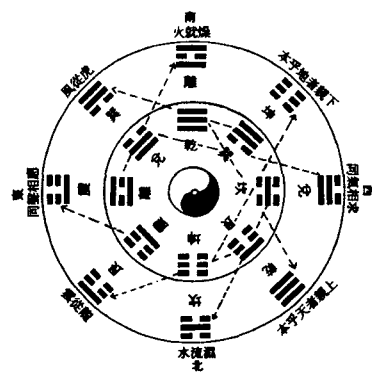


그림 4. 也山의 九五變圖

先天八卦에 따른 後天八卦의 變化를 先天八卦의 空間構造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後天八卦의 공간구조가 나온다(그림 5. 참조).

20) 蔡恒忌/김일근 外 譯, 易으로 본 현대과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2, p. 20
 21) 金碩鎭, 大山周易講解(上經), 서울, 대유, 1993, pp. 84-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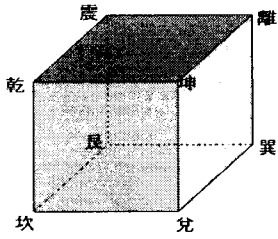


그림 5. 文王八卦 입체모델

(4) 洛書의 입체모델

洛書의 입체모델은 같은 後天 九宮구조인 文王八卦의 卦를 같은 자리에 위치하는 洛書의 數로 바꿔 구성한다. 九宮 中宮의 數인 5는 좌표의 중심이자 변화의 중심인 (0, 0, 0)에 대입한다 (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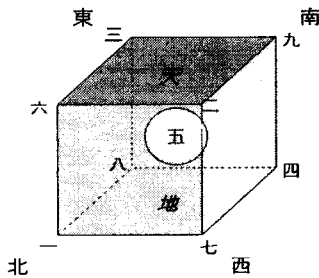


그림 6. 洛書九宮의 입체모델

(5) 河圖의 입체모델

河圖와 洛書는 모두 구체이나 河圖는 洛書에 비하여 원형이고 洛書는 河圖에 비하여 방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洛書의 공간구조를 河圖의 공간구조로 바꾸면 洛書의 方圖가 河圖의 圓圖로 바뀌면서 공간의 구조가 바뀌게 된다. 洛書의 夫婦別居之象에서 河圖의 夫婦同居之象으로 바뀌면서 각 모서리의 부분이 모이게 되면, 中宮에 十土가 생기면서 金火交易이 발생하여 金火의 위치가 바뀌게 된다. 아직까지 河圖의 입체모델은 구성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결 론

空間의 개념과 河·洛·羲·文을 통한 九宮의 공간모델을 연구하여 추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萬物은 時·空間 속에서 살고 있다. 時·空間은 경험 이전적인 것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동시에 이들이 相互存在의 전제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時間은 空間의 變化를 통하여 그 흐름을 인식할 수 있고, 空間은 時間의 흐름에 따라 그 變化를 파악할 수 있다. 서양 철학에서는 공간을 사물, 장소, 간격, 마음 등으로 파악하였다. 동양학에서는 하나의 공간은 더 큰 공간의 한 구성 공간이지만, 그 하나의 공간은 전체의 공간을

대표할 수 있고, 그 여러가지 공간도 하나의 공간일 뿐이며, 공간 자체는 어떤 色도 없고 形質도 없고, 始終도 없으며, 六合도 없지만 없는 곳이 없는 가장 큰 개념이라 하였다. 이런 공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定位가 필요한데, 이는 上·下, 左·右, 前·後의 주관적인 정위표현과 高·低·東·西·南·北의 객관적인 정위표현을 통하여 행한다. 空間의 定位를 중심으로 河·洛·羲·文의 각각의 특성과 상호연관성을 이용하여 위치를 정론하면 공간모델화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다.

1. 天不滿西北 地不滿東南 : 中宮의 분야에서 南面하여 바라본 하늘과 땅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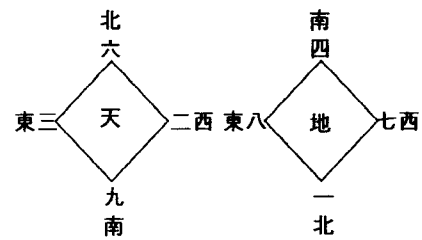


그림 7. 中宮에서 바라본 天圖와 地圖

洛書는 正방과 間방의 수가 다른데 正방의 數는 陽數이고 間방의 數는 陰數이다. 이를 살펴보면 3은 東의 正방, 8은 東의 間방이고, 9는 南의 正방, 4는 南의 間방이며, 7은 西의 正방, 2는 西의 間방이고, 1은 北의 正방, 6은 北의 間방이다. 洛書는 正방이 각 방향을 주하므로 正방의 數가 있으면 그 부분은 滿하지만 正방의 數가 아닌 間방의 數가 있다면 그 方은 不滿하다. 그림7을 살펴보면 天에서는 西와 北에는 間방의 數가 있고, 東과 南에는 正방의 數가 있으므로 天不滿西北 天滿東南하다. 地에 있어서 東과 南에는 間방의 數가, 西와 北에는 正방의 數가 있으므로 地不滿東南 地滿西北하다. 그러므로 天不滿西北 地不滿東南하다.

2. 天道左旋 地道右轉

그림 7을 살펴보면 天圖는 上이 北이고 下가 南이며 左가 東이고 右가 西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를 東西南北의 순서로 회전하여 보면, 天道는 左旋함을 알 수 있다. 地圖는 上이 南이고 下가 北이며 左가 東임이고 右가 西고이다. 이를 東西南北의 순서로 회전하여 보면 地道는 右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天道 左旋 地道右轉함을 알 수 있다.

3. 對衝方은 中宮을 거치지 않고서는 직접 갈 수 없다.

中宮은 모든 氣가 交通하는 中點이다. 각 宮의 氣운들이 순환함에 있어 다른 宮으로 옮겨감에 있어서 한 宮이 면으로 만나는 宮은 3곳이고(그림 8. (1) 참조), 선으로 만나는 宮이 3곳이다(그림 8. (2) 참조). 그리고 점으로 만나는 宮이 하나인데(그림 8. (3) 참조), 이것이 對衝方이다. 그런데 對衝方에 있는 宮과 만나는 점이 바로 中宮이므로 對衝方에 있는 宮과는 中宮을 거치지 않고서는 순수하게 두 宮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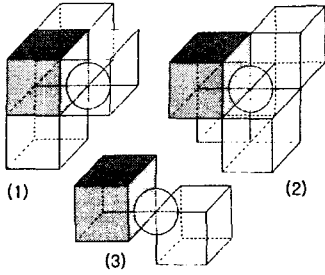


그림 8. 공간의 교류

4. 81變局과 64卦圖의 입체모델

陰陽안에는 각각 또다시 陰陽이 있고, 五行안에는 각각 또다시 五行이 있는 것과 같이, 九宮의 각 宮들은 각각 또다시 九宮을 가지고 있다. 그림 6의 洛書九宮의 입체모델의 각 宮마다 天盤數를 넣어서 九宮을 布局하면 81變局의 입체모델이 나온다. 64卦의 大成卦도 같은 원리로 伏羲八卦의 64卦와 文王八卦의 64卦의 입체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의 확립, 명확한 定位 및 공간 구조를 인체에 적절히 적용한다면 醫學과 養生에서 다양한 연구결과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王弼, 임재우 옮김, 왕필의 노자, 서울, 예문서원, 2000.
2. 최동환, 한역, 서울, 하남출판사, 1999.
3. 李樾, 醫學入門, 서울, 대성문화사, 1994.
4.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1997.
5. 스티븐 호킹, 玄正峻 譯, 시간의 역사, 서울, 삼성출판사, 1994.
6. 李正來, 東醫要論眞詮 卷二, 서울, 公益財團廣林公社學術圖書, 1992.
7.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8. Amos Ih Tiao Chag, 尹張燮 譯, 건축공간과 노자사상, 서울, 지문당, 1987.
9. 나가노 하지무, 催在錫 譯, 공간과 인간, 서울, 국제, 1999.
10. 지안, 법성계강설, 부산, 동남기획, 1999.
11. 김용운, 카오스와 불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1.
12. 임승국, 한단고기, 서울, 정신세계사, 1992.
13. Yi-Fu tuan, 鄭英喆 譯, 공간과 장소, 서울, 泰林文化社.
14.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92.
15. 蔡恒息, 김일곤 外 譯, 易으로 본 현대과학, 서울, 여강출판사, 1992.
16. 金碩鎮, 大山周易講解(上經), 서울, 대유, 1993.